



3·1정신으로 “출발~” 제51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1일 오전 8시30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3000여 마라토너들은 이날 일제에 맞서 만세운동으로 항거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3·1정신을 기리고, 자유와 민주,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광주의 도심을 질주했다. /나명주기자 mjna@

97년전 그 날처럼 “대한 독립 만세~”

광주88교육봉사회 등 3·1절 마라톤대회서 만세운동 재현

“나라를 사랑합니다!” 1일 오전 ‘제 51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도착장소인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 태극기 행렬이 나타났다. 고등학생 50여명은 저마다 가로 1m 크기의 태극기와 노란 풍선을 흔들며 행사장 주위를 행진했다. 100년 전 광주학생들이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을 외쳤던 만세운동을 재현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광주88교육봉사연구회(회장 정병수 정광고 교사)가 주관한 ‘3·1절 기념 나라사랑 실천운동’ 참가 학생이다. 학생들은 행진에 이어 결승점 주위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선수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정병수(48) 회장은 “내일(2일)이 신학

기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서 고맙다”며 “마라톤 참가자들과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3·1절의 의미와 나라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유림(정광고 2년)양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참가했는데 올해는 영화 ‘귀향’을 본 후라 기분이 예전보다 색다르다”며 “쉬는 날이라고 집에 있기 보다는 친구들과 3·1절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광주지역 중·고교 교사들이 결성한 88교육봉사연구회는 국경일 등 기념일마다 학생들과 함께 나라사랑운동과 환경보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나라를 사랑합니다” 광주88교육봉사연구회가 주관한 ‘3·1절 기념 나라사랑 실천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나라사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경찰 덕분에 맘껏 달렸어요”

3·1절 마라톤 코스 교통 통제...51년 안전 지킴이

“광주 경찰 덕분에 맘 놓고 달릴 수 있었어요. 광주경찰 고마워요!” 1일 치러진 제 51회 3·1절 전국 마라톤의 무사고 성공 개최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 통제에 힘써 준 광주경찰이 있기에 가능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를 뚫고 도심 코스를 질주한 3000여명의 마라토너들은 새벽부터 출동해 교통통제와 대회운영에 도움을 준 광주경찰을 한목소리로 칭찬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한 동·서·남부경찰은 총 252명의 경찰을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마라톤 코스에 투입, 경기가 마무리된 오후 2시까지 경기가 원활하게 진

행되도록 도왔다.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가 달려온 지난 반세기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42.195km의 전 구간을 묵묵히 지켜온 것처럼 이날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마라토너들의 안전을 위해 힘썼다. 이날 마라톤 하프코스 여자부 우승자 류승화(39)씨도 “수백명의 교통 경찰이 코스 곳곳의 안전을 책임져줘 맘 놓고 달릴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사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 마라토너가 함께하는 3·1 마라톤 대회의 안전은 광주경찰이 항상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1	해질녘	01:11
해질녘	18:29	달맞이	11:52

날씨 풀러요
대체로 맑지만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안개가 끼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2/11	보성	맑음	-6/11
목포	맑음	-2/11	순천	맑음	-2/13
여수	맑음	0/10	영광	맑음	-4/10
나주	맑음	-5/12	진도	맑음	-3/12
완도	맑음	-1/13	전주	맑음	-3/12
구례	맑음	-5/12	군산	맑음	-3/9
강진	맑음	-4/12	남원	맑음	-5/12
해남	맑음	-6/12	축산도	맑음	3/11
장성	맑음	-5/1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
남부 앞바다(동서~북서)	서~북서	0.5~1.0
남부 앞바다(서~북서)	서~북서	1.0~1.5
남부 앞바다(남서~북서)	남서~서	1.0~2.0

◇생활지수

관심	체감온도
매우높음	감기
높음	뇌졸중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21	12:33
	19:27	00:00
여수	02:01	08:18
	14:16	20:30

◇주간 날씨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	☁	☁	☀	☀	☀	☁
3/16	7/17	9/13	5/11	0/12	3/11	2/10

지역 변호사 72% “테러방지법 반대”

광주변호사회 설문... “위험인물 정의” 삭제·보완 필요

광주·전남 변호사 10명 중 7명은 국회 의장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전체 회원 416명을 대상으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30명 중 93명(72%)이 법 제정을 반대했다. 찬성은 7명이었고, 나머지 30명은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광주변호사회 회원들은 법 조항 중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95%인 124명이 “테러에 관한 예비·음모·선동·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보완해야 한

다”고 밝혔다. 또 정점 조항인 ‘국가정보원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에 대해서는 91%(118명)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사태를 야기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24명(96%)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의 ‘테러방지법 안 찬성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119명(92%)이 ‘부적절했다’고 응답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백일초, 성진초로 개명 새출발

친일 인사의 이름을 교명으로 써 논란이 된 광주 백일초가 성진초등학교로 바뀌 2일 새출발한다. 성진초등학교는 2일 입학식과 학교명칭 변경 기념행사를 연다. ‘성진’은 1926년 11월3일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이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목표로 결성해 광주학생독립운

동의 지도적 역할을 한 ‘성진회’에서 따온 이름이다. 백일초는 6·25 전쟁 당시 활약했던 김백일(1917~1951) 당시 육군 제1군단장 칭명에서 따왔으나 일제 강점기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활동한 전력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보청기 광고의뢰: 심의번호 2013-GN1-10-0067
www.maxo.co.kr *이 제품은 '인양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범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광주·전남 062)430-8900
순천·여수 061)741-4880
전북·전주 063)251-4999

3월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1599-9040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프로' **맥소'스텝'** **맥소'크리스프'** **맥소'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권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특가·맞춤렌탈·장기신용할부·국가보조금 대상자 특별지원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부산중구본점 051)632-62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